종교계도 월드컵 응원

백양사, 하안거 반짝해제 TV 시청
광주 남동성당서도 단체관람 응원

종교계가 월드컵 응원에 나선다.

장성 백양사(주지 두백 스님)는 월드컵 경기의 TV 시청을 허용키로 했다. 백양사는 50여명의 스님이 하안거(夏安居) 에 들어간 상태. 사찰 관계자는 "일과가 끝나는 10시 이후에는 한국전에 한해 TV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안거에 들어가지 않은 스님들은 강원(講院)에 모여 단체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2 월드컵 때 하안거를 '반짝 해제'(解制)한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스님)는 "2002년에는 우리나라 주최였기 때문에 허용했지만 올해는 불가"라며 "하안거에 들어가지 않은 스님들도 단체 관람은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남동성당(주임 윤영길 신부)은 13일 오후 7시30분 미사가 끝난 후 교육관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 신자들이 함께 월드컵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응원은 같이 할수록 즐겁다"라는데 윤 신부와 신자들의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원불교 광주교당도 이날 오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응원전에 교인 60여명이 참여한다. 원불교 최도응 광주 교무는 "태극전사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한국팀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응원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안거(安居)=불교에서 스님들이 하절기(4월 보름~7월 보름)와 동절기(음력 10월 보름~정월 보름) 3개월 동안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몰두하는 것. 안거 중엔 선방(禪房)에 칩거, 불이 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게 원칙. TV 시청이나 신문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계종에서는 매년 전국 100여 곳 선원(禪院)에서 2천200여명의 수좌(首座·참선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이 안거에 참여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올해 120여곳의 사찰이 하안거에 들어갔다.

유류 판매대금 수억원 횡령
농협 주유소 직원 등 2명 구속

해남경찰은 12일 수억원에 이르는 유류 판매대금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해남 농협 주유소 전 소장 박모(51)씨와 이 주유소 회계담당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2년 7월23일께 모 정유사 목포지점에 입금해야 할 유류외상 미지급금 2천만원 상당을 농협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빼돌리는 등 모두 493회에 걸쳐 9억4천만원 상당의 유류비를 횡령한 혐의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kwangju.co.kr

World Cup

■ 오유정 통신원 〈뤼벡대 바이올린 전공〉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교민·독일인 함께 '대~한민국 축제'

광주일보는 독일 현지 유학생들의 글을 통해 2006 독일 월드컵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13일 토고전이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19일 프랑스전이 열리는 라이프치히, 24일 스위스전이 열리는 하노버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월드컵 기간 중 통신원으로 활동합니다. 토고전을 앞두고 뤼벡대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오유정(22)씨가 프랑크푸르트의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마인강변서 1만2,000여명 응원 준비
'형제의 나라' 터키 팬들도 합세 예정

한국 대표팀이 12일 밤 도착한 직후, 프랑크푸르트를 가로지르는 마인강변. 강 중심에 서 있는 가로 30m 세로 15m 크기 대형 스크린이 가던 길을 멈추게 했다.

이 대형 스크린은 'T-Mobile'(독일 텔레콤)에서 장외 응원을 위해 제공한 것이다. 팬들은 강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서서 강 중심에 위치한 화면으로 경기를 관전하게 된다. 13일 있을 한국-토고전에서 경기장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짜릿한 경기의 즐거움을 함께 즐길 것이다. 웃통을 벗어제치고, 한 손에 맥주잔을 든 채, 함께 온 친구들과 얼싸안고 경기를 즐기는 축구팬들의 함성이 벌써 들리는 듯하다.

한국-토고전에는 1만2천명의 교포와 한국에서 온 '붉은 악마'들이 프랑크푸르트를 찾을 것으로 '재독 한인회'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터키의 응원단도 이곳을 찾아 한국팀의 응원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제의 나라' 터키와 한국, 태극 전사들은 아마 두 배의 에너지를 전달받을 것이다.

한국의 첫 경기가 열리는 프랑크푸르트는 교민들의 '한국 알리기'가 축제처럼 전개되고 있다. '붉은 악마' 티셔츠와 태극기 등 응원도구는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알테 오페라'(오페라 하우스)에서는 '한국 축제'(Korea Fest)를 열어 독일인들에게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메세'(Messe·박람회장)에는 대형 무대가 세워졌다. 이곳에선 '붉은 악마'들과 교민들이 같이 응원을 하게 된다. 메인아레나 경기장에서는 12~13일 김덕수가 이끄는 '한누리 전통 연희단'과 안성 남사당의 공연이 열린다. 흥분에 들뜬 필자는 독일인 친구들에게 "'태평소' '장구' '북' 등 한국 전통 악기들과 사자춤, 탈춤 등 한국의 춤을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고 약속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는 날마다 '붉은 악마'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다. 한인회와 2세들은 몇 달 전부터 숙소와 통역, 가이드 등 월드컵 전반에 필요한 문제들을 준비해 왔다.

한인회는 자체 응원팀인 '붉은 호랑이'를 만들었다. 이곳에 사는 한인들은 한국팀의 첫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또 '붉은 악마'들의 현지 적응을 도와야 한다는 고민에 여러 날 밤잠을 설쳤다. 프랑크푸르트 한인회는 독일의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프랑크푸르트 토고 경기전에 응원을 올 수 있도록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독일인들이 한국-토고전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들은 '차붐'으로만 알고 있었던 한국 축구가 2002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독일인 친구 레나(22)는 "4년 전 월드컵에서 한국이 이뤄낸 기적 같은 4강과 독특한 응원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대~한 민국"과 "오~필승 코리아" 등 한국식 응원을 가르쳐주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느꼈던 가슴 뭉클했던 감동의 순간. 13일, 다시 한번 이곳 프랑크푸르트에서 느껴보고 싶다. 붉은 악마들과 함께.

광주 인디밴드 '사운드 마켓'
"필승의 신념으로 응원 이끈다"

"4강을 노래하자"

'사운드마켓' 멤버들이 토고전을 앞두고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 있는 연습실에서 막바지 연습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직장인 3명과 대학생 3명으로 구성된, 광주 인디밴드 '사운드 마켓'(Sound Market)이 13일 토고전 거리응원을 이끈다.

준비한 응원곡은 지난 5월 자신들이 직접 만든 '파이트'(Fight). '붉은 투지/ 붉은 6월/ 붉은 마음/ 붉은 승리/ 우리들은/ 할 수 있어/ Korea A-gain!'이라는 가사에서도 엿볼 수 있듯, 필승의 신념이 담겨있다.

전대후문·월드컵 경기장
거리 응원전 열기 뜨겁게

직장에 다니는 김유환(30·대한보증보험 광주지점 사원·기타&보컬)·고일웅(30·화순 청풍면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드럼)·김기율(29·화순 이양면 사랑의원 물리치료사·기타)씨는 매일 일과 후 1~2시간 동안 연습했다.

또 대학생 멤버인 최고야(여·22·전남대 국어교육과 2년·보컬)·김연경(22·전남대 작곡과 4년·키보드)씨와 성바울(19·군산대 수학과 1년·베이스)군과는 매주 토요일과 휴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연습실에서 4~5시간씩 화음을 맞췄다.

이들은 전남대 후문 앞 거리응원을 주관하는 '모난돌'이 지난 3일 실시한 오디션을 통과한 실력파. '사운드 마켓'은 13일 오후 4시부터 전남대 후문에서 시작되는 거리응원에서 한 차례 공연을 마친 뒤,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해 응원 열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리더인 김유환씨는 "한국 대표팀이 온 국민의 염원대로 반드시 4강신화를 재현할 수 있도록 힘차게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인디밴드=기존의 음악에서 탈피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음악인. 공중파 TV나 라디오 등에 출연하지 않고 카페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고 음반을 낸다.

나원참 〈6852〉 김종두

재경부 前 금정국장 긴급체포

대검 중수부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를 현대차 부채탕감과 관련,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일 긴급 체포했다.

/연합뉴스

축의금 가방 훔치다 하객들에 '덜미'

쌍나팔

○…예식장에서 축의금 3천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하던 간 큰 40대가 하객들에게 붙잡혀 경찰서행.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예식장 식당에서 이모(35)씨가 바닥에 내려놓은 축의금 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절도)로 정모(45·광주시 서구 금호동)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18범인 정씨는 양복을 차려입고 하객으로 가장한 뒤 예식장을 배회하던 중 축의금을 걷던 이씨가 친척들과 인사하는 틈을 타 가방을 슬쩍했다고.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